

중소기업 중심 협력 생태계 구축

익산시, 중소기업 융합 대전개최...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확산 위한 장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융합중앙회(회장 강승구)는 23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중소기업 중심 협력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길고 2017 중소기업융합대전'을 개최한다.

전북도와 익산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간 사업중요교류와 협력 및 기술융합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컨퍼런스,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개

최하여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정현을 익산시 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장과 1,000여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교류·협력활성화와 기술융합사업화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인과 중

소기업간 협력지원에 기여한 개인(유공자) 및 기관·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익산시에서는 (주)메티칼 양용호 대표, (주)진산테크원 박중호 대표, 자연선우권 대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포상의 영광을 얻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는 90여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융합우수제품 및 사례가 전시된 융합협력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

의 우수제품이 전시된 글로벌협력관,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 우수기업 제품이 전시된 지역문화관으로 구성되어 제품을 전시 홍보한다.

행사에 참여한 타 기업들과 새로운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 행사를 통해 익산시 지역의 우수 상품이 국·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이스타항공, 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이스타항공이 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페이코는 NH페이코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20만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페이코에 신용카드, 휴대폰 번호, 계좌 등 결제 정보를 등록해놓으면 이스타항공에서 항공권을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통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스타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추후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뉴스

지난해 농협중앙회 정규직 401명, 연봉 1억원 이상

민주당 김철민 의원, "농협 설립취지 망각 처사" 지적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역대 연봉자가 정규직 전체 직원의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의 정규직(현원) 총 2487명 가운데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이 16.1%에 해당하는 4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지난해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역대연봉자 401명의 인건비 총액은 428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총인건비 대비 16.6%를 차지했다.

역대연봉자가 전체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역대연봉자 직원 숫자는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농협중앙회의 역대 연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51명 ▲2014년 371명 ▲2015년 381명 ▲2016년 401명로 나타났다.

정규직(현원) 전체직원 대비 비율은 각각 9.6% → 9.1% → 15.4% → 16.1%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정규직 기준(현원)의 전체 직원수는 ▲4691명(2013년) ▲4096명(2014년) ▲2474명(2015년) ▲2487명(2016년)을 기록했다.

이들 역대연봉자의 인건비 총액을 연도별로 보면, 481억원(2013년), 397억원(2014년), 408억원(2015년), 428억(2016년)도를 차지하고 있다. 총인건비 대비 역대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은 같은 기간에 각각 12.3%, 10.5%, 14.8%, 16.6%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측은 2015년 도 경제사업 이관으로 중앙회 하급직

급 직원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총원자가 정규직 전체 직원의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의 정규직(현원) 총 2487명 가운데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이 16.1%에 해당하는 4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M급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 1400만원에 달하고 ▲3급도 1억원 ▲4급직원은 8700만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이같은 급여 이외에도 각종 후생복지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직원 1인당 평균적으로 ▲건강검진비 20만원 ▲경조금 101만 5000원 ▲의료비 지원 80만 5000원 ▲학자금 지원 493만 9000원을 지원 받았다.

2016년도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7개 기관 공동 '단체협약서'를 보면, 이 밖에도 중식대 월 10만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의 후생비를 지급하고 각종 재해부조금과 경조금은 물론 직원복지연금의 경우 개인연금신탁 등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직종급, 직책급의 15%를 중앙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합원인 농촌과 농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재벌그룹 계열 기업 수준의 후생복지를 누리고 있다"며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정작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역대 연봉자가 수두룩한 것은 농협 설립취지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뉴스



무주서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전북농협 농촌지원단·농협무주군지부 등 30여명 일손 보태

전북농협 농촌지원단(단장 정수조)과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이정환),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무주농가주부(회장 정명일) 등 30여명은 지난 20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군 안성면 이종덕(44) 농가와 박신묵(46) 농가를 방문하여 비닐제거 및 고추지주대 제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이종덕 농가와 박신묵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 비닐 및 고추지주대

제거 작업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농협 직원들이 적시에 도움을 줘 한시를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정환 농협 무주군지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수확기를 맞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손돕기를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고용플러스복지센터, 업무연계 강화 간담회

전주시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취업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서민금융지원 등 고용과 복지의 업무 연계와 협업을 위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 20일 자월담담 사회복지공무원 등 양 기관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복지 업무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업무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한 6개 일자리 알선기관에 대한 소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

공패키지 사업 안내 △기간 간 애로사항과 협력사항에 대한 당부와 소통 등으로 꾸며졌다.

인후2동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웠는데, 간담회를 통해 상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니 민원인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같은 교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와 노동부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전주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금융권 '우려' 목소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20일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이 적발된 금감원을 보다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 반민반관(半官半民) 조직이다. 다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와 국회, 감사원 등이 금감원을 상시 감독하고 있고, 특히 감사원은 매년 1회 이상 금감원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뉴스

NH농협은행 전북,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개소식 가져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청소년 금융교육센터는 금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경제 지식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청소년의 미래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 금융교육을 비롯해 은행직업체험, 금융사기예방, 핀테크 체험 등 다양한 금융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해 청소년의 금융지식 함양과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향후 전북본부는 주3회, 연간 120회 36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